

2008.4.8. 20:16:27

“대한민국 우주인 첫 탄생”



“잘 다녀오겠습니다”

광주 출신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왼쪽)씨가 7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우주비행 동료인 러시아 선장 세르게이 볼코프(가운데), 비행 엔지니어 올레그 코노넨코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후 성공적인 우주비행을 다짐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부동층·날씨·투표율 최대 변수

총선 D-1 유권자 52.5% 지지후보 결정 못해

4·9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층과 투표율, 날씨 등이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적으로 부동층이 40%에 육박하는데다 투표 당일 많은 비까지 예보되고 있어 투표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을 비롯 4~5명의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해남지역에서 현금살포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어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실시한 제2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6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실시된 투표 의향층 조사에서 ‘만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7.2%가 나왔던 데 비해 무려

13.8%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그러나 이 같은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와는 달리 17대 총선 당시 실제 투표율은 60.6%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이번 총선은 정국을 훌륭 만한 큰 이슈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8대 총선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5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투표 의향’을 대상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했는지 물은 결과,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52.5%가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일보사가 지난달 31일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격전지 5곳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만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3% 수준에 그쳤으며,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35~40%에 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낮은 투표율과 두터운 부동층이 예측할 수

없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낮아지면 대체로 중·장년층보다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더욱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진보·개혁적 성향이 강한 젊은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 성향의 여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칫 50%를 밀물 염려가 있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당일 광주·전남에 강수량 10~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투표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비가 내리면 유권자들의 실외 활동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행기자 redplane@

도축 오리 일부 광주 유통 가능성

수천마리 회수 안돼 AI 공포 확산

전북 정읍시 영원면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에서 들여와 나주 도축장에서 도축된 오리고기 일부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 오리고기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안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방역당국에 신고된 점을 영원면 소재 오리농장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H5N1)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 농장의 오리 6천500마리가 나주 도축장으로 공급됐으며 농장 차량이 전남도내 11개 농장을 다녀간 것으로 밝혀져 고병원성 AI의 공포가 전남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전남지역 34개 농장의 닭·오리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의 모 가공업체에 지난 4일 납품된 5천400마리가 5일 광주·

다. 그러나 총 61만여 마리의 오리 가운데 1개 축사당 20~30마리(총 500마리)의 샘플을 채취해 별안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를 뿐만 아니라 오리의 경우 AI 감염 잡복기간이 2주일이나 돼 앞으로도 1주일 정도 경과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닭·오리의 감염 잡복기(14일)를 감안해 오는 15일까지 감염 가능성이 있는 61만 마리의 닭·오리에 대해 특별 예찰을 벌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MBC 문화월드

황산·장가리

MBC 문화월드 축제 2008년 4월 19일 ~ 5월 4일

무안 + + 황주 축제 촉망

2008년 4월 19일 ~ 5월 4일

- 19일: 황주 축제
- 20일: 황주 축제
- 21일: 황주 축제
- 22일: 황주 축제
- 23일: 황주 축제
- 24일: 황주 축제
- 25일: 황주 축제
- 26일: 황주 축제
- 27일: 황주 축제
- 28일: 황주 축제
- 29일: 황주 축제
- 30일: 황주 축제
- 31일: 황주 축제
- 1일: 황주 축제
- 2일: 황주 축제
- 3일: 황주 축제
- 4일: 황주 축제

무안 + + 장사 춤가리 축제

2008년 4월 19일 ~ 5월 4일

- 19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0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1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2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3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4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5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6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7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8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9일: 장사 춤가리 축제
- 30일: 장사 춤가리 축제
- 1일: 장사 춤가리 축제
- 2일: 장사 춤가리 축제
- 3일: 장사 춤가리 축제
- 4일: 장사 춤가리 축제

광주 / 전남·북 유관여행사 단체, 광주MBC 문화월드 사무실

문의 (062) 226-6070